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리튬, 짐바브웨】 세계적 리튬 매장지 아프리카 짐바브웨, 배터리 주 소재인 리튬 수출 금지 선언

【보크사이트, 인도네시아】 인니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발표, 현지 광산업체들은 반발

【팜유, 인도네시아】 인니, 물가안정을 위한 팜유 수출 재규제

【몰리브덴, 중국】 中 몰리브덴 14년 만에 최고가, 공급부족 한동안 지속 예상

【석유, 러시아】 美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2.5일부 시행 예정

【코로나, 중국】 중국 '리오프닝' 선회 한 달, 불확실성 존재하지만 2분기부터의 빠른 회복 기대

【소비정책, 중국】 中 상무부, 소비촉진 정책조치를 적극적으로 연구, 세분화할 것이라고 밝힘

【공급망, 미국】 미·일 공급망 강제노동배제 TF 출범

【탄소중립, EU】 프랑스, IRA법 대응 자국 친환경 산업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 도입 계획



GVC 뉴스 더하기

- ①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 ② 美 IRA 친환경 차량 세제 혜택 추가 지침 공개



GVC 돌보기

석유산업 3편 - 석유 정제·활용



GVC 전문가

핵심광물 공급망 이슈와 주요국의 광물 확보전략 1편



더 찾아보기

미국 前 상무부 차관보 Kevin Wolf가 말하는 수출통제 프로세스 1편



GVC 소식통

- ① 공급망 관련 지원 사업 안내
- ② 중국 단기비자 일시 발급 중단 관련 지원 사업 안내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최신 GVC 해외 이슈

■ 【리튬, 짐바브웨】 세계적 리튬 매장지 아프리카 짐바브웨, 배터리 주 소재인 리튬 수출 금지 선언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2.20일 아프리카 짐바브웨는 리튬을 포함한 광석이나 선광 되지 않은 리튬 등 가공이 안 된 모든 리튬의 서면 허가 없는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음
 - 리튬은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로 전기차 1대당 약 40kg 필요
 - 짐바브웨에 막대한 리튬 매장량은 지난 20년간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짐바브웨의 최대 희망
- 풀라테 캄바무라 광물차관은 이번 규제는 영세 광부들이 버려진 광산에 들어가 국제 가격이 급등한 리튬 광석을 채취해 인접국으로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로, 리튬 정제 공장을 짓고 있는 대기업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
-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글로벌 리튬 수요가 '22년 52.9만톤 → '25년 104.3만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 리튬은 고에너지 밀도 충전식 배터리 제조에 중요한 구성 요소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지난 2년간 국제 리튬 가격은 11배 이상 상승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으로 배터리 소재 및 부품 업체들의 중국 외 지역에서 리튬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리튬 가격 또한 상승

출처: 조선비즈(22.12.2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보크사이트, 인도네시아】 인니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발표, 현지 광산업체들은 반발

- 12.21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예고대로 '국내 가공·정제 산업 발전을 위한 '23.6월부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 금지'를 성명을 통해 발표(인사이트 28호 참조)
 - 알루미늄의 원재료인 보크사이트의 인도네시아 생산량과 매장량은 세계 6위, 수출액 기준 세계 2위 [KOTRA]
 -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년부터 니켈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22년 초 석탄과 팜유 수출 일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으며, 구리와 주석의 수출 금지도 예고한 상태
-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 리즈키 다르소노 광물·석탄위원장은 "국내 제련소에서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보크사이트 물량이 '22년 생산량의 3분의 1도 안되는 1,400만t에 불과한 상태에서 수출 금지를 하면, 국내가격이 하락하고 해외가격이 올라 밀수출이 많아질 것"이라 지적
 - 제련소가 부족해 생산량의 95% 이상을 수출하는 現상황에서 생산업체들의 우려가 커지자, 인니 정부는 '23년까지 8개의 새로운 제련소가 들어설 예정이며, '27년에는 연 200만t의 알루미늄 가공 시설이 갖춰질 것이라고 설명
 - * 통상 알루미늄 1t을 생산하려면 알루미나 2t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5~6t의 보크사이트가 소요
- 한국의 경우 보크사이트 수입량 중 인니의 비중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출처: 아시아경제 / 조선비즈(22.12.21) 등 언론보도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 【팜유, 인도네시아】 인니, 물가안정을 위한 팜유 수출 재규제

- 1.1일 CNBC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부디 산토소 인니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부터 수출할 수 있는 팜유 물량을 기존 국내 공급물량의 8배 → 6배(국내에 1t 공급 시, 6t 수출 가능)로 줄인다고 밝힘
- 통상 1분기에는 계절적 영향으로 팜유 생산이 감소하고 올해는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까지 겹쳐 생산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인니 정부의 2월부 바이오디젤의 팜유 함량 조정(30% → 35%)으로 수요가 늘 전망
 -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니는 원유 수입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18년부터 팜유를 섞은 바이오디젤을 모든 경유 차량과 기계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20년부터 함량을 30%로 상향, '23.2월부터는 35%로 시행 예정

- 인도네시아는 올해 바이오 디젤 소비량을 예상치보다 3% 증가한 약 3,757만㎥로 전망한 가운데, 지속적인 팜유 수출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가격을 조절하는 상황
 - 국제 팜유 선물 가격은 '22년초 25미터톤(metric ton) 당 1,266달러 → 3~4월 1,800달러 근처까지 치솟았다가 수급이 안정화되며 9월엔 900달러 선 → 현재 950달러 인근에서 유지

출처: 한국경제(23.1.1), 연합뉴스(22.12.29) 등 언론보도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 【몰리브덴, 중국】 中 몰리브덴 14년 만에 최고가, 공급부족 한동안 지속 예상

- 중국내 몰리브덴(정광, 고순도 등)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中광업기술정보포털 Mining120社에 따르면, 순도 99.95% 이상의 몰리브덴 가격은 12.5일 455위안/kg → 12.30일 550위안/kg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최고가 갱신에 가까워지는 중
 - * 몰리브덴은 철강재의 강도를 높이는 중요 광물원료로서, 선박·기계·에너지 수송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고강도·내열성·저밀도 등 특성을 가져 특수강이나 스테인리스강에 합금원소로 첨가됨
- 철강 수요가 반등한 데 반해 광물 공급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향후 3년 세계 몰리브덴 신규 생산능력 확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난 및 이에 따른 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
 - 전문가들은 산업 고도화에 따라 몰리브덴 수요가 급증하면서 '22상반기 세계 공급부족이 1만 톤에 육박했다고 추정

출처: 中 광업기술정보포털mining120(22.12.30) 및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석유, 러시아】 美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2.5일부터 시행 예정

- 美 재무부는 12.30일 '러시아산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에 대한 가격 상한 정책 예비 안내' 문서를 통해 EU 등과의 합의에 따라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상한제를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을 밝힘
 - 美 재무부는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5일 이전에 '석유제품'에 대한 최종 통합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및 특정 서비스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14071을 기반으로 가격상한제를 적용 대상 석유제품을 결정할 계획임을 밝힘
- 석유제품이 해상운송을 위해 선적될 때부터 러시아 이외 지역에 처음 하역될 때까지 적용되며 2.5일 이전에 선적돼 4.1일 이전에 하역된 제품 및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가공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러시아가 '원유 가격상한제'에 대응해 2.1일부터 7.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제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출처: 美 재무부(22.12.30), 연합뉴스(22.12.3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코로나, 중국】 중국 '리오프닝' 선회 한 달, 불확실성 존재하지만 2분기부터의 빠른 회복 기대

- 중국이 '제로 코로나(전면 봉쇄)'에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로 전격 선회한지 한 달, 전미경제학회(AEA) 연차 총회에서 경제 석학들은 중국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경고
 -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수십년간 세계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쳐온 중국의 장기 성장세가 가파르게 둔화 되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다"
 - 세나이 아그카 조지워싱턴대 교수 "특정 지역 리스크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전염된다"
-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홍콩 해운업체 HLS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증가로 중국의 3대 항만인 상하이, 선전, 칭다오 모두 물류 공급망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노동력 부족으로 공장들이 제때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1~2월 선적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물류량이 매우 적은 상태라 덧붙임

- 한편 주요 기관들은 춘절 연휴 전후인 1월 말이 중국의 코로나 정점이 될 것으로 판단, 2분기부터는 경제활동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금년 성장률도 5% 내외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가 기업 규제 완화와 시장 신뢰 회복을 재차 강조하는 가운데, 3월 전국인민대회에서 내수 진작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기대
- '22.12월말 기준,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는 5.6억~6억 명으로 전국 감염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중국질병관리센터는 지역별 실질 감염률 베이징 83%, 상하이 70%, 쓰촨성 64%, 저장성 35% 내외로 발표)

출처: 헤럴드경제(23.1.9) 등 언론보도, 국제금융센터 Brief 등 KOTRA 종합

■ 【소비정책, 중국】 中 상무부, 소비촉진 정책조치를 적극적으로 연구, 세분화할 것이라고 밝힘

- 中 상무부는 소비가 2023년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소비회복과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정책·조치를 적극적으로 연구 및 세분화할 것이라고 밝힘
-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유동 인구량과 소비 수요가 증가 중으로, 최근 인기인 '라오쯔하오(老字号: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기업들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품종을 늘리며 서비스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
- 자동차 산업이 국민경제의 핵심산업이자 내수를 견인하고 소비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분야라고 설명
- △중고차 유통 확대 △신에너지차 소비 지원 △노후 차량 폐차 및 갱신 촉진 등 정책을 연구해 자동차의 단계적 소비 및 순환 소비를 추진하고, △충전 및 주차 시설 건설 지원 △자동차 소비 관련 금융서비스 개선으로 자동차 소비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이라고 덧붙임

출처: 제일재경(23.1.6)

■ 【공급망, 미국】 미·일 공급망 강제노동배제 TF 출범

- 미국과 일본의 통상 당국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배제하기 위한 협력체를 구성
- 미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와 일본 경제산업상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공급망 내 인권과 국제노동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는 내용의 협력각서(MOC)를 체결
- 이번 TF는 2021년 설립한 '미일 무역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로 출범하였으며, 미국에서는 USTR, 상무부, 보건인적서비스부, 국토안보부, 노동부, 국무부가 참여하고 일본에서는 경산성과 외무성 등이 참여
- TF는 노동, 인권과 관련된 법, 정책, 지침을 공유하고 기업 및 노동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등을 추진할 예정

출처: 연합뉴스(23.1.7)

■ 【탄소중립, EU】 프랑스, IRA법 대응 자국 친환경 산업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 도입 계획

- 프랑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에 따른 자국 친환경 산업 유출 방지 및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친환경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 인센티브에는 친환경 수소, 배터리,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국내 산업 생산시설 구축 촉진을 위한 입법조치가 포함될 것이며, IRA법이 프랑스가 유럽의 탈탄소화 선도자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친환경 산업의 대규모 신속 및 간소한 보조금 제도를 포함, 이른바 '유럽형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독일과 공동 추진, EU 회원국이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3.1.5)



GVC 뉴스 더하기 ① :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 ◆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화) 2023년 업무계획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보고하며, **①경제위기 집중 대응과 ②위기 이후 미래준비**를 정책기조로 설정하였다.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 보도자료 및 상세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

■ 업무보고 개요

- 2022년 한해, 탈원전 폐기 등 에너지정책을 정상화하고, 13년만에 원전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둬.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금리·물가·환율 3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 하지만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투자 쌍둥이 절벽, 자국우선주의 확산, 에너지위기 지속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 **경제위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집중대응이 필요**

■ 업무보고 주요 내용

'23년 수출 6,800억불 이상 달성, 설비투자 100조원, 외투 300억불 이상 유치로 민간주도성장 견인

①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 역대 최대 360조원(작년 351조원) 무역금융 공급, 청년 무역인 매년 1,500명 양성
 - 수출신용보증 한도 2배 확대, 수출초보기업 운영자금 90%까지 대출보증, 환변동 보험료 할인을 30%p ↑
 - 교육·취업·창업을 연계하는 청년 무역인 양성 프로젝트 가동, 주요국 바이어·품목 정보 플랫폼 구축
 - 신용시장 및 자원부국에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 집중 지원 등
- 체코, 필리핀, 영국 등 원전시장 개척, 방산·플랜트 수주 총력 지원
 - 원전: '30년까지 10기, 방산: 올해 170억불, 플랜트: 올해 300억불 이상 수주 목표
-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한 범부처 수출 지원정책 강화, 지역맞춤형 수출대책 마련을 위한 '수출카리반' 운영

②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 10대 업종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지원으로 투자 플러스 달성
 - (반도체) 팹택 공장, 용인 클러스터 조성, (자동차) 현대차 전기차 공장, (조선) 스마트조선소 구축 등에 맞춤형 지원
 - 첨단전략기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상한 비율 10%p 확대, 국비분담률 10%p 상향 등 추진
- 상생인센티브, 인허가 타임아웃, 공타면제 등 **신속행정 3중세트** 도입
- 산업 R&D(5.6조원)를 11대 산업(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초격차 R&D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집중 지원
- **바이오경제 2.0, 에너지 르네상스, 산업대전환**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 바이오회 소재, 에너지 등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으로 활용(올해 상반기 로드맵 수립)
 - 5대 에너지 신산업(수소, 해상풍력, CCUS, 고효율 기자재, 스토리지)의 성장동력화
 - 민간 제안을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 인재 확충, 생산성 혁신 등 산업대전환 정책 마련(5월 '종합전략' 발표예정)

③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일감 3.5조원 공급, 전년 대비 1.1조원 증가
-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본격 개시, '28년까지 총 4,000억원 투입
 - 원전 안전성 향상 및 핵심 부품·기자재 혁신기술 지속 개발(올해 원자력 R&D에 1,736억원 지원)
- 전력 실시간 거래, 가격입찰 방식 도입 등 전력시장 혁신제도 시범 도입

④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 美 IRA, EU CBAM 등에 선제적·전방위 대응 및 Fab4 전략적 고려
- 중남미·중동 FTA 체결 및 자원부국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선진형 ODA 추진

■ 인포그래픽 :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약속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약속



1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습니다.

전부처 수출 역군화

수출 6,800억불 이상

수출전략회의



수출카라반



新수출 3총사



산업 ODA 고도화

신흥 개도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공급망ODA



기술ODA



그린ODA



2 투자 확대와 역동적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투자주도 성장



첨단산업 → 초격차 달성



주력산업 → 디지털·그린 전환



3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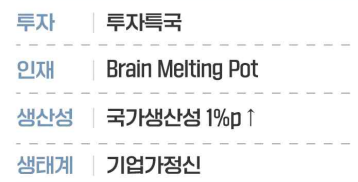
바이오경제 2.0



에너지 르네상스



산업대전환



4 원전생태계 복원의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원전

매년 1기 원전 준공
일감 3.5조원 공급



에너지 자급률 ↑



고효율·저소비구조 정착



2026년 수출 5위 + 제조 3위 + 경제영토 1위 달성!



GVC 뉴스더하기 ② : 美 IRA 친환경 차량 세제 혜택 추가 지침 공개

◆ '22.12.29일 미국 재무부는 IRA 친환경 차량 세제 혜택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 주요 외신은 이번 해석이 외국 자동차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드라인 발표 시까지 美와 지속 협의 예정이라 표명한 바, 지침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美 재무부, IRA 친환경 차량 세액 공제 추가 정보 공개(12.29일)

추가 공개 정보	세부 내용
구매자를 위한 세액공제 FAQ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별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친환경 차량 목록 친환경 차량 구매 시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소득·가격 제한, 적용 시점 등 기존 보유 친환경 차량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소득·가격 제한, 혜택 청구 방식 적격한 상업용 친환경 차량 대상 혜택
상업용 친환경 차량에 대한 차등 공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용 친환경 차량 세액 공제는 ①차량 가격의 30% 또는 ②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용)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USD7,500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 + (美에너지부) 상업용 친환경 차량 가격의 30%와 증분비용은 대부분 USD7,500 이상이므로, 대부분 혜택 최대액인 USD7,500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
세액공제 관련 용어 규정 등 세칙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체의 권장 소매가격 한도 등 1.1일부터 자동 적용되는 변경 사항과 관련 용어에 대해 제조업체와 구매자에게 명확한 정의를 제공 특히 이 통지는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한 날짜(구매 날짜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에 세액 공제 목적으로 차량이 '서비스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 및 지침 예상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를 위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제조·조립 요건과 지침 예상 방향 -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23.3월까지 IRA 내 친환경차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가치 산정 방식 제안 지침(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공개 예정

■ 주요 사항

- 특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를 명시**, 한국산 전기차를 상업용 목적으로 북미로 수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에 포함될 전망
 - 상업용 전기차는 배터리 핵심광물과 부품의 미국산 일정 비율 요건의 추가 충족 없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라고 정의
 - * '리스'까지 포함하여 상업용 친환경차 적용 범위를 확대해석 (다만 차량 수명의 80~90%에 해당하는 장기 리스, 리스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 등은 사실상 판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해서는 '북미'의 개념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 제한**
-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제조·조립 요건 확정**
 - 배터리 핵심광물 40% 미국 또는 FTA체결국 내 추출·처리요건 → '27년까지 80%
 - 배터리 부품 최소 50% 북미제조·조립요건 → '29년까지 100%
- **배터리 핵심 광물 관련,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에 정식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 등 20개 국가를 명시하고, 최종 지침 수립 시 'FTA 체결국'의 정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
 - 단, 미 재무부는 무엇이 FTA 체결국에 준하는지에 대한 기준의 목록을 '23.3월 별도 발표 예정으로 언급
-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
 - 미국과 FTA 未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산으로 간주하기로 함
 - 또한,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



GVC 돌보기 : 석유 3편 - 석유 정제·활용

- ◆ 최근 OPEC+ 원유 감산 결정(22.10.5), EU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 시행(원유 '22.12.5, 석유제품 '23.2.5) 등으로 국제 유가 및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활용되는 중요한 에너지원의 하나인 석유에 대해 알아보자

〈석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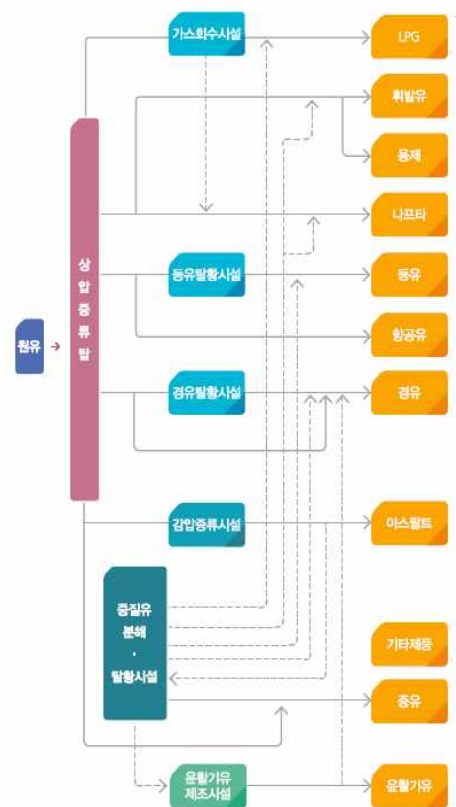
40호: 석유 개요
41호: 석유 생산·운송
42호: 석유 정제·활용

■ 석유 정제

- 원유에 포함된 다양한 탄화수소 혼합물의 끓는점의 차이를 활용하여 증류, 탈황, 분해, 개질 등 석유 정제(Oil Refining) 공정을 거쳐 각종 석유제품과 반제품 생산

- 석유정제능력이란 상압증류장치에서 하루동안 처리하는 물량으로 B/D(Barrel Per Callender Day)로 표기

- ① 상압증류공정(Atmospheric Distillation) : 대기압 정도의 상압에서 원유 성분의 끓는점 차이로 원유를 증류하는 공정으로 가스회수시설, 탈황시설 등을 거쳐 LPG,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 생산
- ② 감압증류공정(Vacuum Distillation) : 상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하는 방법(열분해 방지)으로 상압증류공정에서 남은 잔사유(약 40%)를 진공에 가까운 상태에서 재처리해 끓는점이 높은 윤활유 및 아스팔트 등 석유제품 생산
 - 산에서 밥을 지으면 100℃ 이하에서 물이 끓는 것처럼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점이 낮아지는 원리 응용
- ③ 개질공정(Reforming) : 촉매를 사용하는 접촉개질법 등을 활용해 중질 나프타를 개질하여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유분(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생산
- ④ 중질유분해공정(Cracking) : 1차 원유정제시 가장 많이 생산(30~50%)되는 벙커C유를 촉매 등을 활용해 휘발유·경유 등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하는 공정
 - 크래킹은 벙커C유에 포함된 길고 큰 탄화수소 분자들을 크기가 작은 탄화수소로 잘라내는 공정
 - 중질유 분해시설은 고도화 시설, 2차 정제시설이라고도 부르며 1차 정제시설 대비 20배 이상의 투자비 소요



■ 석유 제품



①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 : **프로판(C₃H₈)**, **부탄(C₄H₁₀)**이 주성분으로 주로 **취사용, 난방용, 수송용**으로 활용(끓는점 30℃ 이하)

- 상온·상압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프로판·부탄에 압력(6~7kg/cm²)을 가해 액화시켜 부피를 줄인 (1/240~1/280) 다음, 수송에 용이하도록 압력용기에 저장
- 액화천연가스(LNG) 대비 열량이 높으나 휘발유·경유에 비해서는 열량이 낮아 잦은 연료충전 필요

② **휘발유(Gasoline)** : **휘발성이 있는 액체 상태의 석유유분**을 총칭하며 용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자동차·항공·공업용**으로 구분(끓는점 30~180℃)

자동차용	• 옥탄가에 따라 고급휘발유 와 보통 휘발유 로 분류하며, 우리나라는 93년부터 납성분이 제거된 무연휘발유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항공기용	• 프로펠러를 가진 경비행기 연료로 사용되며, 사고 위험성으로 품질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공업용	• 연료 이외의 용도로 유지 추출, 드라이클리닝, 고무공업, 도료, 세척용 등으로 사용

* **옥탄가** : 가솔린 엔진 내에서 휘발유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노킹(Knocking) 현상을 억제하는 성질(안티노킹)을 나타내며 옥탄가가 높을수록 안티노킹성이 높음(옥탄가 예시 : 보통휘발유(1호) 91~94 < 고급휘발유(2호) 94 이상)

③ **나프타(Naphtha)** : 경질중질 나프타로 구분되며 **석유화학공업 원료 및 휘발유 제조원료** 등으로 사용

경질 나프타	• 용제·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 생산에 사용(끓는점 30~130℃)
중질 나프타	• 휘발유 제조 또는 B.T.X(벤젠·톨루엔·자일렌) 생산에 활용(끓는점 90~170℃)

④ **등유(Kerosene)** : 오래전부터 **등화용**으로 사용된 석유제품으로 주로 가정용, 난방용으로 사용(끓는점 180~250℃)

⑤ **항공유(Jet Oil)** : **제트엔진**에 사용되는 연료로 군용기 및 민간용 항공기 연료로 사용(끓는점 등유와 유사)

⑥ **경유(Diesel or Gasoil)** : **디젤엔진 연료**로 주로 사용되며 황함량에 따라 자동차용(0.001%) 및 선박용(0.05%)으로 구분, 본래 경유를 분해한 가스를 첨가시켜 도시가스 열량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 가스 오일이라는 별칭이 붙음(끓는점 250~350℃)

⑦ **중유(Fuel Oil)** : 상압증류 공정에서 최후까지 남는 무겁고 끈적끈적한 제품으로 점도에 따라 'B-A, B-B, B-C유'로 구분되며 **선박·보일러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분해공정 원료**로 투입하여 경질유(휘발유, 등유, 경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 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끓는점 350℃ 이상)

B-A유	• 경유와 중유의 비율이 60:40으로 산업용 소형 보일러와 중 소형 선박에 사용
B-B유	• 경유와 중유의 비율이 40:60으로 중형 보일러, 중형 선박에 사용
B-C유	• 경유와 중유의 비율이 0:100으로 대형 공장 및 일반 연료용으로 사용

⑧ **아스팔트(Asphalt)** - 감압 증류된 잔사유(찌꺼기)를 원료로 하여 제조되며 주로 도로 포장용으로 사용

※ 석유 거래

- 국제원유시장은 거래소 유무에 따라 **선물시장(Futures Market)**과 **실물시장(Physical Market)**으로 구분되고, 실물시장은 다시 **현물시장(Spot Market)**과 **기간계약시장(Term Market)**으로 분류

선물시장	• 선물거래소 플랫폼*에서 인도시점이 정해진 표준화된 선물상품 을 거래하는 시장 * 뉴욕 NYMEX(New York Mercantile Exchange), 런던 ICE(Intercontinental Exchange), 두바이 DME(Dubai Mercantile Exchange)
현물시장	• 원유공급자·수요자·트레이더 등이 전화, 이메일, e-window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필요한 시점마다 개별적으로 석유를 거래 하는 실물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개념의 시장
기간계약시장	• 일정기간 정해진 물량을 정기적으로 인도 하는 장기(1년 이상)·단기(1년 미만) 거래 등을 의미하며 중동산 원유는 대부분 장기계약에 의해 거래

- WTI油와 Brent油는 각각 세계 양대 원자재 선물시장인 뉴욕 NYMEX와 런던 ICE 시장에서 기준 원유로 거래되며, Dubai油는 중동·아시아 지역 현물시장에서 기준 원유로 거래



GVC 전문가 : 핵심광물 공급망 이슈와 주요국의 광물 확보전략 1편

- 한국무역협회 박가현,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과 시사점」보고서 요약

◆ 각국의 탄소중립 목표달성, 첨단산업 확대로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핵심광물의 주 **활용처**와 **수급이슈**, 주요국의 **광물 확보 정책**을 알아보자.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

(42호) **핵심광물의 활용과 수급이슈**

(43호) 주요국 확보전략(미국)

(44호) 주요국 확보전략(EU, 중국)

1. 핵심광물의 활용

- **핵심광물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래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로 가치사슬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에 가까워 질수록 부가가치가 커지고*** 국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

* '16년 미국에서 사용된 희토류 가격은 6.1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활용되며 총 4,9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

〈핵심광물 주요 활용처〉

				
태양광	배터리	풍력터빈	방위산업	항공기
게르마늄, 인듐, 텔루륨	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알루미늄, 희토류	크로뮴, 갈륨, 스칸듐	니오븀, 탄탈럼, 바나듐

자료 : GAO(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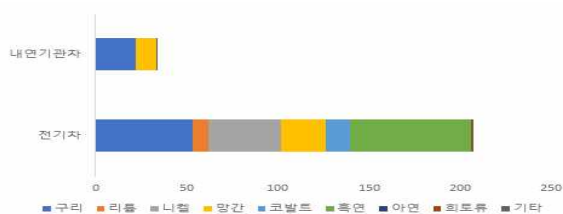
- **(전기차 및 배터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모빌리티 산업 발달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전기차 및 배터리를 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

* '21년 전체 자동차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는 전년도의 두 배 수준인 660만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광물 사용량이 6배에 달하며 사용 광종도 다양해 전기차 관련 광물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며, 배터리 광물 또한 2040년 광종별로 3배에서 42배까지 증가할 전망

〈내연기관 및 전기차 광물 사용량 비교〉

단위 : kg/vehicle



자료 : IEA

〈2040년 전기차 관련 주요 광물 수요전망〉

주 : 2020년=1



자료 : IEA

- **(친환경에너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친환경에너지 장비의 핵심 소재인 광물의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

- 1M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에는 구리, 아연, 크로뮴, 니켈 등 총 15톤의 광물이 사용되며(석탄발전 대비 6.2배), 전력망 구축에도 알루미늄, 구리, 몰리브덴 등 다양한 광물이 필요

- **(방위산업) 각국 방위산업에서 핵심광물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제품의 성능 향상과 기동력 제고에 기여하며 대체가 어려움**

- EU는 방위산업용 광물은 주로 고성능 합금이나 특수 혼합물 형태로 사용되며 이를 위해 높은 순도와 정밀가공이 불가피하여 민간 부문보다 공급망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

2. 핵심광물의 수급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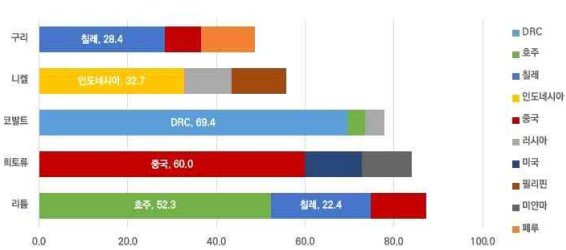
■ (수급불안 및 가격변동 심화) 신흥국 경제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로 원자재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안이 확대됨

- 신흥국·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금속집약적 산업의 확대로 세계 원자재 수요는 '11년 790억톤에서 '60년에는 1,670억톤으로 2배 이상이 될 전망이며, 특히 중국의 경제발전은 광물수요 급증의 주요인임
- '22년 초 리튬 및 니켈 가격은 2021년 1월 대비 각각 738%, 94% 상승했으며, 비철금속 가격지표인 LME 지수는 5000대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

■ (생산·가공의 특정국 편중) 핵심광물의 자원 편재성 및 소수국가에 집중된 생산·가공시설이 공급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음

- (생산) 배터리 생산의 필수 광물인 코발트, 흑연, 리튬 생산의 50% 이상이 한 개 국가에서 이루어지며, 기타 주요 광물 약 70%도 3개국 이내에서 생산되고 있음
- (가공) 대부분의 광물 분리, 정·제련이 중국에서 이루어져 생산보다도 공급의 집중도가 큰 상황

〈 주요 광물의 3대 생산국 〉



자료 : IEA(2022)

〈 주요 광물의 3대 가공국 〉



자료 : IEA(2022)

■ (신규 광산개발 부진) 자원탐사 및 신규광산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채굴 성공률, 환경오염 우려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빚는 등 신규 생산 불확실성이 증폭

- 광산 탐사에서 채굴까지 통상 15~20년이 소요되며, 초기발견부터 시운전까지 도달할 확률은 매우 낮음
- 2011년 美 기술 광물 연구소의 희토류 개발프로젝트 조사결과, 30개국 180여개 기업에서 진행한 275개의 프로젝트 중 2021년 4월 생산에 진입한 프로젝트는 4개로 10년간 성공률은 1.5%에 불과¹⁾

■ (자원민족주의 강화) 자원 보유국들은 원자재를 자국의 정치·경제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국유화를 단행하고 수출을 통제

- 배터리 원자재의 가치가 높아지며 중남미 등 자원 생산국을 중심으로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원 보유국들이 자국내 공급물량 확보 및 정부수입원 확충 등을 위해 수출을 통제하는 사례가 늘
- '22년 멕시코는 리튬산업 국유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영 리튬회사를 설립, 인도네시아는 '22년 보크사이트, '23년 구리 원광 수출중단 계획을 발표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1) DOD, 100 DAY SUPPLY CHAIN REVIEW REPORT : REVIEW OF CRITICAL MINERALS AND MATERIALS



더 찾아보기: 美 前상무부 차관보 Kevin Wolf가 말하는 수출통제 프로세스 1편

◆ '22.12월 KOTRA 워싱턴무역관 및 주요 언론 현지 특파원단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로 근무한 Kevin Wolf 인터뷰를 진행했음. 美 수출통제 전문가가 바라본 미국의 중국 수출통제와 현지 산업 동향, 한국에 미칠 영향 등을 2편에 걸쳐 살펴보자.



〈유튜브 시청 링크〉

Q : 10.7일 美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이 중국이 목표로 하는 첨단 노드반도체와 슈퍼컴퓨터 항목에 대한 수출 규제 확대를 위해 발표한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 두 가지 규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 이 수출통제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슈퍼컴퓨터에 필요한 모든 종류 고급 장비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출발하는 품목, 미국산이 아닌 외국산 품목에까지 일련의 통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참신합니다. 기본적으로 첨단 반도체, 슈퍼컴퓨터 제조 능력을 갖춘 중국 생태계 전체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국가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으로, 그 배경에는 첨단 반도체, 슈퍼컴퓨터가 중국의 무기 개발, 생산 그리고 현대화 계획에 필수적이라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Q : EAR 시행은 중국 등에 이중용도(Dual-use)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용도(Dual-use)' 제품은 무엇인가요?

A : 일반 상용품이지만 무기나 군사적 용품으로 발전되거나, 가공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 바로 이중용도 상품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저는 위성 발사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의 연관성 때문에 위성 품목도 포함하고 싶습니다.

Q : 관련하여 '통제(Control)'와 '자유무역(Free trade)'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 중국의 기술 투자 및 활용 정책은 널리 이용 가능한 상업적 기술과 군사 현대화 계획을 의도적으로 통합하기 시작, 이는 민간군사용합정책(civil military fusion policy)이라 부릅니다. 중국군의 현대화는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했으며, 상업적 기술은 인권 침해와 관련된 활동(위구르 강제 수용소의 DNA 추적 및 모니터링, 안면인식, 대량 감시 등)을 위해 널리 상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22년 9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냉전 이후 첫 공개 석상에서 중국에 대한 통제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상업적인 기술일지라도 중국 정부가 군대를 현대화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고급 컴퓨터 기능, 첨단 반도체 그리고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언급했습니다. 10.7일 발표된 규칙은 이러한 거대한 전략 정책의 시행 규칙인 셈입니다.

Q : 미국의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이외 지역으로 공급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 네, 당연히 경제적인 결정은 한국기업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수출통제는 광범위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규칙이 복잡한 이유는 성숙한 노드 반도체, 저사양 전자제품 등에 대한 투자 무역 거래를 공격적으로 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출통제에 해당하는 품목은 무역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숙한 노드 반도체가 아닌 최첨단 고급 반도체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보편화될수록 통제 기회는 줄어들지만, 국가안보 본질 그 자체가 경제적인 한계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의무와 동맹국들의 집단 안보가 (반도체 산업 등) 특정한 경제적 피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GVC 소식통 ① : 공급망 관련 지원 사업 안내

■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사업 -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 기업의 개별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수출바우처 메뉴의 13개 대분류 8,000여개 서비스)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 사업 기간 : '23. 2. 1일 ~ '24. 1. 31일 (12개월)
 - 모집 대상 :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 모집 기간 : 1. 20일(금) 24시
 - 지원요건 및 바우처 국고보조율 : 산업별 진입, 성장, 확장 단계 국내기업 대상,
바우처 발급액 70%(중소기업), 50%(중견기업) 국고 보조
 - * 산업별 지원 대상 국내기업 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은 아래 참가신청 링크 첨부파일 확인 요망
 - 참가 신청 : [2023년 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클릭\)](#) ①신청 기업에 해당되는 산업 및 수출 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② 세부 트랙에 따라 수출 바우처 발급액 선택
 - 참고 사항 : 참가신청 링크 내 첨부파일 세부내용 확인 필요
 - 문의처 : 사업내용 - 통합 안내센터 ☎ 02-6004-8400
시스템 - 중소기업플랫폼 ☎ 02-3771-1100 / 시스템 이용 관련 ☎ 02-3460-3427

■ 2023년 북미 미래차 밸류체인 진입 지원 사업

- KOTRA는 우리기업의 북미 미래차 밸류체인 진입 지원을 위해 OEM 타운홀 미팅*을 현지에서 개최
 - * 완성차 제조기업(OEM)의 경영진이 참석하여 자사의 구매 및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소싱 담당자와 네트워킹
- 일시 / OEM / 장소 : 2.6일(월) / Stellantis社 / Novi, MI
 - * GM(미시건), Navistar(시카고), Ford(미시건) 연내 예정
- 주관 : 전미자동차·장비제조업협회(MEMA)
- 참가 규모 : (국내기업) 자동차 부품사 40개사 / (현지기업) OEM별 구매 고위 관계자 및 실무진 450여명
- 주요 내용 : (사전간담회) 협업기관 소개, 행사 프로그램 설명, 네트워킹 팁 제공 등
(세미나) OEM별 고위인사 초청 자사의 구매, 개발 동향 발표
(네트워킹) OEM별 실무진(바이어, 엔지니어)과의 접촉, 명함 교환
- 모집 기간 : 1. 13일(금) 18시
- 참가 신청 : [2023년 북미 미래차 밸류체인 진입 지원 사업\(클릭\)](#) 링크 통하여 온라인 신청
- 참고 사항 : MEMA 규정에 의해 1개사당 1개의 타운홀 미팅만 참가할 수 있음
선정결과는 1.20일(잠정) 개별 통보, 선정 기업 대상으로 KOTRA 무투24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 등록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처 :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 김보경 대리 / bkkim@kotra.or.kr



GVC 소식통 ② : 중국 단기비자 일시 발급 중단 관련 지원 사업 안내

■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 운영

-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따른 KOTRA의 긴급 지원 사업

- 사업 개시 : 1. 12일(목)
- 지원 대상 :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對중국 비즈니스 애로 보유 우리기업
- 지원 데스크 주요 내용

① (정보전파) 중국 관련 주요 이슈 모니터링하여 對중국 수출기업 지원 특별페이지 통해 실시간 안내

* 입국 및 중국 내 이동 관련 제한 조치 및 중국 '23년 新산업진흥, 소비 진작 등 주요 정책 동향 분석 및 공유

** 특별페이지 링크는 재안내 예정

② (상담) 기업 애로 접수·지원 통합창구 운영

- 對中 수출기업의 애로 종합 접수 및 상담지원

* 긴급지원 사업 안내 및 지원, 사후관리를 통해 완결형 애로해소

- 對中 투자진출기업 애로 지원을 위한 심층 컨설팅 제공

* 법률, 회계, 물류 등 현지 한투센터가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비상근 전문가를 활용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긴급 조치 등 대응책 마련

③ (공급망) 원부자재 소싱 애로 기업 대상 대체거래선 발굴 지원

④ (사업) 중국 출장 애로 기업을 위한 대행 서비스 긴급 지원

- (무료) 수출24 글로벌 대행서비스, 디지털마케팅 사업을 통해 바이어 발굴부터 해외 현장마케팅까지 지원

서비스명		지원내역	현행	특별지원(안)
수출 24	대리 면담 지원	▶ 수출 거래선과 대리 면담 수행	45만원	무료 (단, 기업 당 2건 한도)
	전시회 대리참관	▶ 중국 현지 전시회에 대리참관(바이어 명함 확보 등)	45만원	
	바이어 실태조사	▶ 수출 거래선(사무실, 공장) 대리방문, 현장 확인	45만원	
디지털마케팅		▶ 디지털마케팅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후속지원	130만원	무료(8주 지원)

- (지사화) 해외 현지마케팅 또는 긴급 현장 참여가 필요한 업무에 KOTRA 해외무역관 전담직원을 투입하여 안정화 시점까지 지원

서비스명	지원내역	지원기간	참가비
긴급지사화	▶ 입국 제한으로 직접 수행이 어려워진 해외마케팅 업무 대행 * 출장대행, 거래선 발굴·관리, 인허가 취득 지원, 샘플시연·상담, 현지 유통망 점검 등	3개월	90만원
디지털긴급해외출동 서비스	▶ 디지털 기기로 실시간 현장을 보여주며 긴급현안지원 * 긴급현장대응(장비 시운전, A/S, 현장실사), 바이어면담(제품시연), 전시회 참관 등	3일/회	50만원

• 문의처 : KOTRA 대표전화 ☎ 1600-7119

* 대표전화 통하여 세부서비스 상담 요망

글로벌 경제지표('23. 1. 11. 수)

[환율]

	'21말	'22.11말	'22.12말	1/6	1/9	1/10	전일비	22말비
₩/U\$	1,188.80	1,318.80	1,264.50	1,268.60	1,243.50	1,244.70	0.10	△1.57
선물환(NDF,1월물)	1,190.00	1,320.10	1,265.30	1,267.70	1,242.70	1,243.40	0.06	△1.73
₩/CNY	186.51	185.25	181.44	185.16	183.83	183.52	△0.17	1.15
₩/Y100	1,032.48	952.61	945.56	945.87	943.26	943.31	0.01	△0.24
Y/U\$	115.14	138.44	133.73	134.12	131.83	131.95	0.09	△1.33
U\$/EUR	1.1318	1.0345	1.0617	1.0517	1.0677	1.0734	0.53	1.10
CNY/U\$	6.3681	7.1427	6.9630	6.8545	6.7771	6.7705	△0.10	△2.76

* '22년 평균 환율: (₩/U\$)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 1263.1원, (₩/¥100) 959.4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29	'23.1.10 (전일)	'23.1.11	전일(1.10比)	'22년최저比	'22년말比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20	77.09	76.04	△1.1 △1.4%	4.2 5.9%	△2.2 △2.8%
철광석		79.5(10.31일)	115.60	118.70	122.15	3.5 2.9%	42.7 53.6%	6.6 5.7%
비 철 금 속	구리	7,000.00(7.15일)	8,395.00	8,722.00	8,766.50	44.5 0.5%	1766.5 25.2%	371.5 4.4%
	알루미늄	2,080.00(9.28일)	2,371.50	2,336.50	2,397.00	60.5 2.6%	317.0 15.2%	25.5 1.1%
	니켈	19,100.00(7.5일)	30,000.00	27,485.00	27,700.00	215.0 0.8%	8600.0 45.0%	△2300.0 △7.7%

[반도체]

	'21	'22	'22.10월	11월	12월	1/5	1/6	1/9	1월(~9)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2.41	2.16	2.05	2.00	2.00	1.99	2.00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9.9%	△23.0	△32.4	△33.1	△40.3	△46.1	△46.1	△46.6	△46.3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57	6.53	6.53	6.54	6.54	6.54	6.54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4.7	10.7	△9.6	△11.2	△12.4	△12.8	△12.9	△12.9	△13.3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12.16	12.23	12.30	'23.1.6	전주(12.30比)	'21년말比
운임지수	5046.66	1107.55	1123.29	1107.09	1107.55	1061.14	△4.2%	△79.0%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12.16	12.23	'23.1.3	1.5	1.6	전일(1.5)比	'21년말比
운임지수	2217	1515	1560	1515	1250	1146	1130	△1.4%	△49.0%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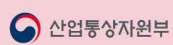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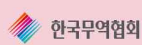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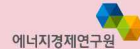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하단 URL 또는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제작기관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KSIA 한국반도체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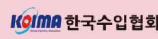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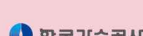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



전략물자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기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